

2019년 9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역정책과 과 장 김상경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9월 23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아프리카돼지열병 앞으로 2주가 고비,

태풍 직후 전국 일제소독 실시

- 9.23.(월) 지역담당관 파견 등 가용 자원 총동원 -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앞으로 2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of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, 전국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다.
-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마지막으로 발생(9.17일, 연천)한 후 6일간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, 잠복기간(최대 19일)과 오늘(23일)의 김포 의심신고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.
- 특히, 앞으로 2주일 은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의 생석회가 씻겨 내려간 일부 지역의 방역 수준을 원점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시기로,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소독활동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.
- (생석회 차단벨트)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*를 다른 지역보다 4배나 많은 358톤(농가당 배포 기준) 공급해 축사 주변과 농장 진입로, 외부 등에 물샐 틈 없이 뿌린다.

- 다른 지역도 배부 받은 생석회를 농장 입구와 축사 사이 등에 빠짐없이 뿌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.

*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 반응 (온도 200℃)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킴. 열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(pH11~12) 작용이 있어 소독효과를 나타냄

- (전국 일제소독의 날) 이번 일제소독에는 지자체, 농축협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소독 활동을 실시한다.

- 지자체는 비축하고 있던 생석회를 농가에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, 실제 농가가 충분한 소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소독요령과 생석회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소독을 지도한다.

-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“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”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축사 내외부, 시설 및 장비, 차량 등에 대해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.

- 농축협과 한돈협회는 농장주가 최대한 소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, 태풍 피해 농장 복구를 지원하며 적정 희석 비율 등의 소독 요령을 알려준다.

- (중점관리지역 등 관리 강화) 중점관리지역에 설치 완료한 농장초소(250개소)는 화천, 양구, 고성 등 기타 접경지역과 밀집사육단지까지 설치를 확대하여 농장 길목에서부터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.

- 중점관리지역과 접경지역 14개 시군에는 월요일부터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직원 2명이 상주하며 농장 진입로 소독, 농장초소 운영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한다.

○ 또한, 오늘부터 이틀간 농식품부·농촌진흥청 합동으로 농가 소독실태 등 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한다.

□ (기타 방역) 살처분과 매몰이 완료된 파주와 연천 지역에는 태풍 타파가 비껴지나가며 비 피해는 없었다.

○ 그러나 빗물에 의해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비닐로 완전히 덮고, 울타리 설치와 생석회 도포, 주 2~3회 책임관리자의 점검 등으로 침출수 유출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.

○ 멧돼지 기피제는 중점관리지역과 전국의 울타리 미설치 농가, 멧돼지 출몰 인접지 양돈농가 등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이후 수요가 있는 모든 양돈농가에도 공급해 야생멧돼지와 사육 돼지의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.

□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“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일주일동안 방역에 최선을 다했으나, 모두 잊고 이제 다시 원점에서 최고 수준의 단계까지 방역태세를 조속히 끌어 올려야 한다.”라고 당부했다.

○ 또한, 생석회 도포뿐만 아니라 희석 비율을 준수한 소독약을 뿌리고,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의 근무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철통같은 방역을 해 달라고 지자체와 농업인, 축산관계자 모두에게 강조하였다.

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요령

-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.
-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, 오물, 분변, 흙 등을 세척·청소해야 하며,
-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작용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.

축산농가 소독요령

❖ 소독 전 청소

- 소독전 분뇨·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.
- 고압세척기 등으로 축사의 지붕 → 벽 → 바닥 순으로 오물을 물로 세척·청소하고 건조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.
- 축사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,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, 소독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.

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

❖ 축사바닥 및 토양

- 축사의 지붕 → 벽 → 바닥 순으로 소독하며,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한다.
※ 이때 생석회는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, 화상을 입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.
-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.

❖ 분변 등 오물

- 분변 등 오물을 수거·처리하고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.

❖ 정문소독조 및 축사입구 소독조

- 정문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며,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하여 동결방지 장치를 한다.
※ 동결보완장치 마련 불가능 시 생석회를 도포한다.
(생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소석회가 되어도 일정기간 소독효과를 나타낸다.)
- 축사 입구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, 축사내부에서 소독하되 미지근한 물로 소독약을 고농도(유기물조건, 소독제의 사용방법 참고)로 희석하여 사용하고, 각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비치한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< 생석회(CaO, 과립형) 소독 효과 >

-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열반응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킴(온도 200℃)
- 열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석회로 변해 강알칼리(pH11~12) 작용이 있어 소독효과를 나타냄

1. 공통사항

- ①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
- ②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지 않음

2. 통제초소에서의 사용

- ① 이동통제 초소 옆에 생석회와 물을 충분히 준비
- ② 차량 바퀴가 1회전 할 정도로 살포(1포대 반(30kg)/바퀴당)
- ③ 도로에 사용 시 생석회가 날리지 않도록 도로를 좁혀 서행 유도
- ④ 축산관련차량은 도로 옆 넓은 공간으로 유도하여 차량 바퀴 및 하부를 포함하여 내·외부 분무소독 조치

3. 농가에서 사용 시

- ① 농장 진입로 등 땅바닥에서만 사용
- ②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생석회를 살포
- ③ 비나 눈이 온 후에는 다시 생석회를 살포

4. 주의사항

- ① 겨울철에 사용이 용이하나 바람이 불 때는 눈·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발생소지가 있어 주의
- ② 살처분 장소 등에서 생석회를 다량 뿌릴 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독면 및 밀폐 안경을 착용